

완도해양치유센터 이용권 최대 50% 파격 할인한다!

기본 프로그램 50장 구매 시 60%, 프리미엄 20장 40% 할인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에서 '2025 완도 방문의 해' 기념과 여름철을 맞아 입장권을 최대 50% 할인하는 파격 이벤트를 준비했다.

공단은 많은 사람들이 완도해양치유센터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다양한 해양치유 테라피를 통해 일상 속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할인은 기본 프로그램 이용권 50장 구매 시 최대 60%, 프리미엄 프로그램 이용권 20장 구매 시 40%, 30장 이상 구매 시 50% 적용되며, 디럭스 프로그램은 30장 이상 구매 시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용권은 성수기 시즌을 고려하여 6월 18일부터 7월 18일까지 판매할 예정이며, 완도해양치유센터에서 현장 판매한다.

공단은 할인율을 높인 만큼 장기 이용객 유입 및 개인·단체 이용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빈 이사장은 "할인권 판매는 해양치유 효과를 경험하고 해양치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단순한 관광이 아닌 건강 증진과 관광이 어우러진 힐링 콘텐츠인 해양치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완도해양치유센터는 해수, 해조류, 머드 등 해양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해양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몸과 마음의 회복을 돕는 국내 유일 해양치유 시설로, 한국관광공사 주관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된 곳이다.

개관 이후 현재까지 8만여 명이 넘게 다녀가며 방문객들로부터 '다시 오고 싶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완도/장선우 기자



아이들이 행복한 화순, 아동친화도시 인증 갱신 쾌거

제2기 힘찬 출발 다짐, 아동친화도시 현판 제막식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6월 2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갱신받았다고 밝혔다.

화순군은 19일 제2기의 힘찬 출발을 다짐하며,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와 아동권리대변인, 아동참여단 등 40여 명이 함께 모여 군청 현관에서 기념 현판식을 거행했다.

2020년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최초 인증을 받았고, 4년 동안의 아동정책과 아동친화 공간 조성에 대한 실적과 앞으로 4년 동안 추진하게 될 아동친화 정책과 사업을 계획하여 작년 12월 인증갱신을 신청한 결과 지난 5월 서면 심사와 인터뷰 심사를 통과하여 6월 2일 최종 확정을 받았다.

화순군은 그동안 아동의 참여권 확대, 아동권리 교육 강화, 아동친화공간 조성, 아동안전망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회를 매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아동의 정책·사업 제안 기회 제공, 아동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는 아동참여기구 성과를 크게 인정받았다.

제2기 아동친화도시 인증 기간은 2025.6.2.부터 2029.6.1.까지 4년간 유지되며, 화순군은 제2기 아동친화도시 출범과 더불어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친화 중점사업을 14개 부서에서 49개 사업으로 확대 및 모니터링 실시 ▲지역사회 아동권리 인식 확산을 위한 아동권리교육 및 캠페인 확대 ▲미취학 아동 등 다양한 아동의 의견 수렴 창구 마련 ▲아동권리대변인의 역할 강화를 위한 아동권리침해사례 관리 및 고충 처리 ▲다양한 아동청소년의회의 의원 참여로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는 현장 중심의 내실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화순/김종환 기자

장성군, '침수 방지 핵심시설' 장성배수펌프장 정비

시간당 3만 2640톤 배수 가능... 시설점검 및 모의훈련 실시

장성군이 최근 '장성배수펌프장' 사전 점검 및 가동훈련을 실시했다. 장마철에 대비해 주민 침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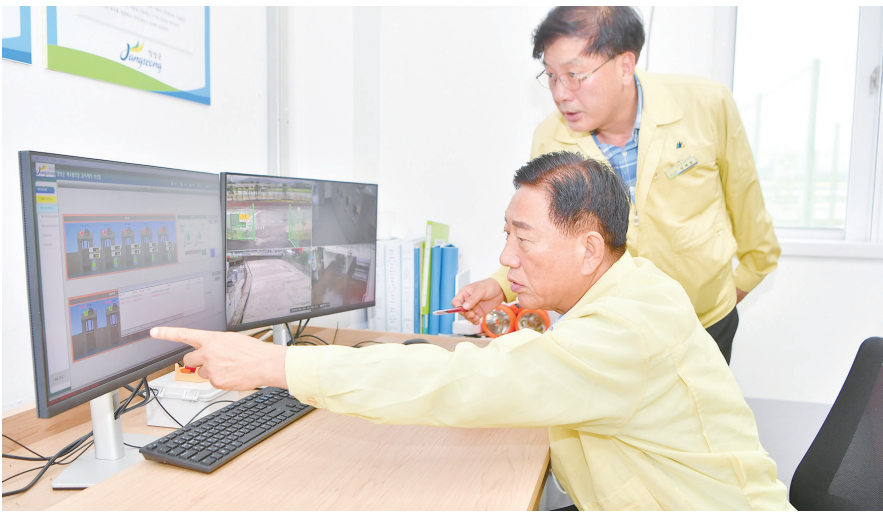
'장성배수펌프장(황룡면 월평리 158-1)'은 장성읍·황룡면 일대 배수를 책임지는 핵심 시설이다. 배수펌프장 건립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90년 38억 원을 투입해 조성했다.

장성군은 2023년 33억 원을 들여 수문 일체형 펌프 5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재난 대비 역량을 꾸준히 향상시켜 왔다.

현재 유수지 5400㎡ 규모에 모터펌프 3대, 수문일체형 펌프 5대를 갖추고 있다. 펌프와 모터 8대를 동시에 가동하면 시간당 3만 2640톤의 물을 배수할 수 있어 읍 시가지 및 농경지 침수를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우기를 앞두고 시행된 이번 사전점검에서 군은 펌프 작동 상태와 전기설비 이상 유무, 배수로 상태 확인 등 전반적인 시설 점검을 마쳤다. 집중호우에 대비한 모의훈련도 실시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방재 인프라를 강



화하고 기후 변화 대응체계를 정비하는 등 군민이 안전한 장성을 만들기 위해 지

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성/황해연 기자

광양시(시장 정인화)는 오는 6월 23일부터 7월 3일까지 '2025년 하계 청년 행정인턴' 19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광양시 청년 행정인턴 프로그램'은 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공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사회생활의 감각을 익히고 진로를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모집 대상은 광양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중 공고일 기준 근로

광양시, '2025년 하계 청년 행정인턴' 19명 모집

7월 3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본인 직접 방문 신청

및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자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 본인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등을 제출하면 되며, 대상자 선발은 오는 7월 10일 공개 추첨으로 진행된다.

선정된 인턴은 7월 14일부터 8월 8일까지 4주간 근무하게 된다. 광양시청과 소속 사업소 등에 배치되며, 근무부서는 민원지적과 등 5개 부서다. 수행 업무는 민원 응대 및 행정 업무 보조로, 민원 안내, 서류 정리, 시설·행사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조동수 광양시 청년일자리과장은 "청년들이 행정 인턴을 통해 취업역량을 높이길 바란다"며 "행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등 시 청년 정책 발굴과 수립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매년 동·하계 2회에 걸쳐 약 4주간 청년 행정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5년 동계 모집에는 28명 선발에 203명이 지원하며 높은 관심을 모았다.

광양/신선호 기자

전남 구례군은 지난 6월 18일 구례5일 시장 일원에서 구례군청, 구례소방서, 안전보안관 등 2개 기관 18명이 참여해 여름철 재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여름철 재난 안전 집중신고제는 여름철 발생 빈도가 높은 호우·태풍, 산사태 위험, 폭염, 물놀이 안전 등 위험요소에 대한 재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

구례군, 재난 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 홍보 캠페인

시하고 있으며 8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지역 사회의 각종 사고 징후를 신고하는 '안전신문고'를 알리고 안전 위험요소 발생 사례와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 설치 방법, 안전신문고 앱 활용 위험요소 신고 요령 등에 대한 안

내를 실시했다. 생활 주변 안전 위험요소에 대한 신고는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안전신문고 참여자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5천원 상당)을 지급 예

정이며, 재난예방 효과가 큰 우수 신고는 심사를 통해 안전신고 포상금(최대 100만원)과 안전신고 마일리지(1,000점)를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재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생활 주변 위험 요소들에 대해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안전신문고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례/한정호 기자

나주시의회, 현장에서 답을 찾다

정례회 맞아 주요 현안 사업 및 민원 현장 방문

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 제270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지난 18일, 주요 현안 사업 및 민원 현장 네 곳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이재남 의장 등 나주시의회 의원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주요 시설물의 실태를 점검하고 민원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6월 2일부터 18일까지 총 19건의 민원이 접수된 '송월동 소재 자이아파트 백로 서식지'로, 생활 불편 호소 민원(17건)과 백로 서식지 보호 요청 민원(2건)이 공존하는 곳이다. 의원들은 현장에서 소음과 악취 등을 직접 경험하고 민원 사항에 공감했으며 앞으로 나주시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해결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후, 빗가람동으로 이동해 빗가람호수공원 일원과 빗가람수질복원센터를 방

문했다. 빗가람호수공원 일원에서는 소관 부서(빗가람시설사업소)로부터 '배메산 사계절 꽃동산 조성사업'과 '소규모 야외 공연장 조성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사업 현장을 점검했으며 빗가람수질복원센터에서는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해 관제시스템과 지하에 설치된 하수처리 점검하였다.

마지막으로 동강면 곡전리를 방문해 양만장 관련 민원 현장을 둘러보았다. 민원인의 목소리를 통해 양만장 허가에 따른 환경피해, 조망권 침해, 소음 피해 등 인접 주민들이 겪고 있거나 겪을 수 있는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나주시 관련 부서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당부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